



부록

기후 정의

희망과 실천

팻 와트킨스(PAT WATKINS)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부록, 기후 정의: 희망과 실천
팻 와트킨스(Pat Watkins) 지음

©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부록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상업적이 아닌 용도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내용이 복사된 자료에 명기되어야 함:
“부록, 기후 정의: 희망과 실천”에서 차용함. © 2017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사할 수 없음.

모든 성경의 인용구들은 특별히 다른 표시가 없는 한 표준새번역을 사용함
© 대한 성서 공회에 저작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우리의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과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목 차

제 1 장: 성경 연구	6
제 2 장: 기후 정의 사역에 동참한 공동체들의 목소리	9
제 3 장: 기후 정의를 위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전략과 해결책들	18
자료들	27
저자 소개	29

서론

2016년 교재인 *기후 정의: 희망과 행동에의 부르심*은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지구가 아주 한정된,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무한하지도 않고 한없이 퍼줄수도 없는 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지구라는 행성의 취약성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다.

제 1 장은 창조세계의 돌봄의 성서신학에 대한 연구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 2장에 가서는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기후 정의를 회복하라는 우리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뒤따른다. 제 3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묻는다. “왜 기후 정의가 종교적인 문제인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기후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제 4장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현재의 기후 부정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제 5장과 6 장은 기후 부정의가 지구와 그 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 7장은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제 8장은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들로서 단지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후 정의를 추구하도록 세상을 변혁해야 될 사람임을 깨달으라고 도전한다.

기후 부정의는 우리가 지구의 취약성과 한계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구를 소유한 것처럼 사용하고 착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 지구의 생태계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우리의 욕심과 편하고자 하는 마음과 과소비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공동의 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창조세계와 창조주와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기후 정의 혹은 기후 부정의에 공헌하느냐 아니냐를 정하는데 있어서 모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제 1 장

성경 연구

욥기는 욥이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한 가지 이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다른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끝난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이해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욥은 자기가 정해진 법도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을 피했다. 그는 일곱 아들과 세명의 딸이 있었다. 그는 7,000 마리의 양과, 3,000 마리의 낙타와, 500 쌍의 소와, 500 마리의 암나귀들과, 많은 하인들이 있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세계의 열매들로 보상해 주셨다고 보았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존재했고 법도를 지키며 사는 이들을 위해 존재했다. 창조세계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런 욥의 이해는 아주 빠르게 바뀔 수 밖에 없었다. 1 장이 끝날 때쯤에는 그는 자녀들과 가축들과 하인들을 다 잃었다. 2장에서는 그는 자신의 건강도 잃었다. 욥은 비참해졌다. 욥과 같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욥은 창조세계와 창조주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다소 빠르게 배웠다. 그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자신에게 모든 가축들을 주고 자신이 그것들을 잘 돌본 대가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창조주에 대한 그의 견해는 법도를 지켜 사는 대가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였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었다.

욥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은 없었다. 그는 전혀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욥이 자기 탄원을 직접 하나님께로 들고 간 이유였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직면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가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은 공정한 계산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욥 31:6).” 이 시점에서 내 생각에는 욥은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경우에 실수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자백을 듣고 싶어했던 것 같다.

욥에게 사과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설명을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4 장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을 퍼부어 대면서, 정확하게 52개의 질문을 하면서 욥을 공격하신다. 그 질문들 중에 3개만 빼놓고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이며 욥이 창조에 대한 이해도 없고 통제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욥이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고 있다. 이 질문들은 그의 세계관을 넓히고 그에게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셨다 (욥기 38:4).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¹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움을 주지않고 욥에게 질문을 퍼부어 대신다.

그 전에는 욥은 창조세계를 자기 자신의 성공이라는 프리즘에 비추어 바라 보았다. 그 때 세상은 공평한 곳이었다. 아니면 그는 창조 세계를 자신의 불행이라는 프리즘에 비추어 바라보았다. 그 때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에 대한 더 정직하고 더 넓고 더 포괄적인 견해를 가질 것을 강요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욥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욥은 단지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창조세계를 주관한다!”

창조에 대한 온당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나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까지도 잘못된 전제를 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상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자연 과정을 만드시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지를 아주 길게 묘사하신다. 하나님은 욥이 언제나 창조 세계는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묘사해 주신다.

이런 질문들이 효과가 있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한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40:4). 하나님과의 또 다른 대화를 한 후에 욥은 다시 이렇게 대답한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42:2 - 3; 6).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 전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제 우주의 창조주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폭포수같은 질문공세를 하시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보고 우주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이해는 욥이 티끌과 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게 한다. 더 이상 욥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욥의 만족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더 큰 맥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 것에서 온 것이다.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하나님을 법을 지키면 상주는 분으로 이해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이런 자연 세계의 놀라운 묘사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이다. 욥의 이 장들에서 나오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세계의 혼돈스러운 창조의 묘사이며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의 통일성을 가진다. 창조세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욥이 마침내 이러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1. 욥기 38:4-7; 32; 34; 39 절과 39:1.

제 2 장

기후 정의 사역에 동참한 공동체들의 목소리

이 부록에서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기후 정의의 비전을 나누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들려진 목소리들과 세계 각국에서 모아진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희망의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창조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끄집어 내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이런 기후 정의 운동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짐바브웨(ZIMBABWE)에서 들려온 목소리: 샤미소 무파라(SHAMISO MUPARA), 총회 세계선교부의 환경 학자

짐바브웨(Zimbabwe) 동부에 있는 마랑게(Marange) 마을에서 자라면서 유일한 연료는 팻감 나무였다. 이것은 우리들이 요리든, 건축이든, 물을 데울 때든, 추운 겨울의 난방을 위해서든 집에 필요한대로 나무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들이 나무를 잘라버리면 다른 대체물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무가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팻감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 우리들의 일과는 으레 아침 네시면 일어나서 왕복 두 시간을 걸어서 산에서 팻감 나무를 구해오고 그래도 학교는 일곱시까지 맞추어 가는 것이었다. 학교가 오후 두 시에 끝나면 바로 다시 산에 가서 팻감 나무를 구해 오곤 했다.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 일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팻감 나무를 구해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로 여겨졌다. 이것은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였고 우리들은 공부할 여력이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결과 성적도 좋지 않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아주 많았다.

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교실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코 드자망와나 드지리피?>(Kodzamangwana dziripi? 내일 팻 나무는 어디있는가?)라고 써있었다. 그 포스터의 그림은 한 농촌 아낙이 자기 머리에 팻감 나무를 지고 등에는 영양실조된 아기를 업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가 지고가는 팻감나무는 대부분 잔가지들이었다. 그녀의 주변은 민둥산들이었고 몇 잡초들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맨땅이었다. 그 땅을 반으로 갈라놓은 깊은 고랑에는 바람과 물의 침식이 있는 증거가 보였다.

오랫동안 그것은 그저 내 4년 교실에 있던 포스터였다. 내가 고등학교에 가고 지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무작위 별목으로 인해 황폐해진 산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포스터가 정확하게 이해되었다.

산림파괴는 땀감, 약품, 조명, 그리고 건축 자재로 나무를 사용하는 짐바브웨의 농촌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나무들은 가구나 벽돌 굽기 등의 상업용 용도로도 벌목되고 섬유질이 풍부한 나무껍질은 가방이나 깔판이나 담요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상업적으로 나무들은 목재, 종이원자재, 건축자재, 조명, 가구, 식재료, 그리고 유용한 화학성분 추출 등의 목적으로 마구 벌채된다.

짐바브웨에서 경제는 2008년에 붕괴되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지역(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region, SADC는 남부 아프리카의 열 다섯개 국가를 포함함)의 전기 부족 사태와 겹쳐져서 도시 거주민들까지 땀감을 나무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남부 아프리카는 이 지역의 주요 전기 생산지였는데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수가 없다. 짐바브웨의 상황은 그 나라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전기를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더 복잡해졌다. 그 결과 짐바브웨 전역에 걸쳐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땀감을 위한 벌목이 진행 중이다. 숲들은 전기 위기 이전에도 피해를 보았는데 이제는 질식해서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

짐바브웨의 산림파괴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짐바브웨의 산림청(Forestry Commission) 고위 관리와 직접 만나서 한 2016년 12월 21일자 회의에서 드러난 바로는, 1992년과 2008년 사이에서, 그 나라는 5백만 종 이상의 나무들을 상실하였다. 1992년과 2008년 사이에, 자연 함수림과 수풀농장등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늘어났지만 거의 4,521,472.7 헥타르의 산림이 무작위 벌목으로 상실되었다.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다:

1. 산림파괴의 장단기 효과는 무엇인가?
2. 사회경제적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대규모 산림파괴로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구인가?
4. 산림파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주: 이 시기들은 딱 구분되는 시기들은 아니다.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시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쓰기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후대의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느껴서 환경 동우회(Environmental Buddies)가 탄생하게 되었다. 환경동우회는 비영리 기관으로 환경파괴에 대처하는 기관이다. 2012년에 내 사촌과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치콘다(Chigonda) 지역에서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세 개의 묘목원을 책임지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과 학교와 교회 등등에 나무를 심는 일을 책임맡았다. 우리는 학생들을 이 일에 동원하였고 그 아이들이 씨를 뿌리는 일을 맡았다. 우리는 주로 토종 나무들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주로 땀감으로 쓰이고 과일 나무들은 농촌 지역의 먹거리 보조식품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치콘다(Chigonda) 나무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¹

**오클라호마(OKLAHOMA)와 스탠딩 락(STANDING ROCK)에서 들려온 목소리:
데이빗 윌슨(DAVID WILSON) 박사,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 감리사(CONFERENCE SUPERINTENDENT) 겸
촉토(CHOCTAW) 족 시민**

한 문제가 그 전에 이렇게 많은 부족들과 원주민들을 미전역과 전세계에서 함께 모이게 한 적이 없었다. 그 문제란 바로 에너지 수송 파트너(Energy Transfer Partners)라는 이름을 가진 텍사스의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에 있는 송유관에 노출된 수자원 보존 문제이다.

노스 다코타에 사는 스탠딩 락(Standing Rock) 지역의 수(Sioux) 족은 2014년에 처음으로 다른 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코다 송유관(Dakota Access Pipeline)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거의 1,200 마일에 이르는 송유관은 스탠딩 락 지역의 조약을 맺은 땅을 통과하는데 스탠딩 락 부족 회의(Standing Rock Tribal Council) 의장인 데이브 아캄바울트 2세(Dave Archambault II)에 의하면 자기 조상들의 묘지터를 관통한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바로 반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송유관은 미조리 강(Missouri River)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그 강은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천 에이커의 농경지와 목초지에 관개용수를 제공하는데 이 공동체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전세계에서 수천 명의 부족 사람들이 기도캠프(Prayer Camp)라고 알려진 노스다코타의 캐논볼(Cannonball, ND)에 있는 캠핑 장소에 모였다. 그 이외에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개인들이 스탠딩 락(Standing Rock) 부족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캠프로 몰려들었다. 물론 오세티 사코윈(Oceti Sakowin, 일곱개의 부족회의 불꽃들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진 노스와 사우스 다코다의 다른 여섯 부족들이 온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림잡아 2,000명의 인원이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하고 2016-2017년 겨울 내내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미조리 강을 관통하는 혹은 근처를 통과하는 송유관 진입을 반대할 목적으로 육체적 및 영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 최근의 사태 전개를 알고 싶으면 뉴스 기사를 찾아 보라.)

내가 처음 2016년 8월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많은 일들이 진행중이었다. 라코타(Lakota) 족의 영적 지도자들은 방문객들을 영접하고 하루 종일 여러 언어로 기도를 해주었고 기도에 쓰이는 잎담배 향을 피어 주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캠프에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간 내내 학교가 열렸고 젊은 아이들은 농구와 배구를 하고 놀았다. 아이들은 강에서 수영을 하였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캠프 뒤에서 말을 타고 경주를 하였다. 그것은 정말 공동체의 연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수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Oklahoma Indian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온 우리 세 사람은 주류 언론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고자 왔다. 우리는 매주 수천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캠프용품들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

고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하고 일관되게 붙어 있는 이들의 끈기에 감동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했고 방문객들이 캠프를 찾아준 것을 고마워했다.

나는 원주민 교회들로 이루어진 연회가 지원을 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매 번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듣는 이들에게 수자원 보호라는 이 문제가 단지 스탠딩 락(Standing Rock)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일깨워줬다. 이것은 미조리 강 상하류에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문제이다. 이것은 비옥한 땅을 송유관에 빼앗겨야 하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의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스탠딩 락은 원주민들의 가치 중의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즉, 우리는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²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에서 들리는 목소리:
도티 용어 목사(THE REV. DOTTIE YUNGER),
콜럼비아 디스트릭트(DISTRICT OF COLUMBIA) 안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메모리얼 교회
(METROPOLITA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전임 목사**

약 6년 전에 나는 아나코스티아 강(Anacostia River) 지킴이(Keeper) – 그 강을 지키는 대변인 중의 한 사람 – 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낚시도 하고 자기들이 잡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아나코스티아 강(Anacostia River)은 메릴랜드(Maryland) 주와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를 통과해서 포토맥 강(Potomac River)으로 흘러들어간다. 오염물질들은 쓰레기매립장, 폭풍우, 하수구 범람, 땅위로 흐르는 빗물, 그리고 지류 등을 통해서 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강은 세 개의 체사피크 베이 프로그램 관심 지역(Chesapeake Bay Program Regions of Concern) 중의 하나이고 여러 단체들의 정화 활동의 중심이다.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은 아나코스티아 강(Anacostia River) 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갈색 큰 머리 메기가 종종 입술 주변에 살점이 붙어진 붉은 돌출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분명히 아나코스티아 강에서 잡히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나는 낚시꾼들에게 그들이 잡은 것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몇 명이 그 강에서 잡아 먹었는 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000 명의 사람들이 아나코스티아 강 유역에서 살면서 강에서 고기도 잡고 자기들 식탁에 요리를 올려 놓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 중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을 건넌 낚시꾼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내가 20년 안에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 그러나 오늘 당장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으란 말입니까?”

나는 얼른 우리가 제 7구역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콜롬비아 디스트릭트(District of Columbia)에는 8개의 구역이 있고 제 7 구역(Ward 7)은 가장 가난한 구역들 중의 하나이다. 제 7 구역에는 단지 4개의 온전한 종합 식품점이 있다—어림잡아 한 식품점 당 23,000 명의 주민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들이 공동체에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지 알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나는 메트로폴리탄 기념 연합감리교회(Metropolitan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 교회는 왕성한 식품 배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도매상에서부터 만기일이 지난 음식을 받아다가 나누어주는 것이다. 음식은 상한 것은 아니지만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음식이 도착하면 도매상들은 그 나머지 음식들을 버리는 편이 보관하는 것보다 더 비용도 덜 들고 쉬운 길이었다...

그 때 나는 제 7 구역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건강한 음식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공동체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제 7 구역 교회들과 협력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위한 혹은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교회들은 그 지역 사회의 공동체의 기반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을 열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은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 7 구역의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건강한 음식, 지속가능한 직업, 그리고 폭력 종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필요에 따라 이웃들에 의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는 과정에서 메트로폴리탄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 교인 하나가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대학(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UDC)에서 농업, 도시활성화, 환경 공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Urban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Sciences, CAUSES) 학장으로 발탁되었다. 그 대학(CAUSES)은 도심지역 식품망(Urban Food Hub)이라는 개념을 발전 시켰는데, 그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먹거리를 생산, 준비, 분배하고 더불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식량 확보를 개선하고 직업을 창출하며 도시 지역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 대학(UDC CAUSES)과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Metropolitan Memorial UMC)와 여러 다른 협력단체들이 힘을 모아 동부 수도권 도심지 농장(East Capitol Urban Farm)을 만들고자 한다.

동부 수도권 도심지 농장(East Capitol Urban Farm)은 미국 수도 한 복판에 3 에이커의 대지 위에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농장 한 쪽에는 농부들의 장터가 들어서서 우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이것은 농장 건너편의 저소득층 주택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혜택이 될 것이다. 원래는 월마트(Walmart)가 농장 건너편에 자기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래를 중단하였

다. 그래서 이 농부들의 장터가 사람들이 와서 싱싱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일부 동네 농부들도 자기들의 수확들을 거기서 팔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동역자들이 동부 수도권 도심지 농장(East Capitol Urban Farm)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디씨 주택청(D.C. Housing Authority)은 이 땅을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대학(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농장을 짓도록 임대해 주었다. 수산업 및 야생동물 보호국(The Fish and Wildlife Service),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메트로폴리탄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Metropolitan Memorial UMC), 그리고 지역의 비영리단체들 중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친환경 직업 훈련을 하는 곳 등—모두가 다 함께 이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수년을 동역해왔다.

언제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모임들과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뭉친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각자 이 길로 인도하신 결과이다—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일어난 일이다.³

**캄보디아에서 들린 목소리:
소티코 파구라얀(SOTICO PAGULAYAN),
총회 세계선교부의 세계 창조세계 돌봄 사역팀의 일원이자
캄보디아의 지역사회 건강 및 농업 개발 사역 유급 사역자**

기후 변화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식량 확보나 건강, 영양 보급, 그리고 교육 등 많은 개발지역 사역들은 캄보디아의 홍수와 가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재원은 캄보디아같은 가난한 나라들보다는 더 부유한 나라들의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려는 나의 사역의 전략적인 접근법 중의 하나이다. 여성들은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고 쌀 농사 이외의 대체 소득원을 찾아내는데 아주 창조적이다. 그들은 홍수와 가뭄에 속절없이 당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많은 가구들을 돕는데도 아주 창조적이다.

이런 접근법은 사역에 참여한 이들에게 종합 농업 시스템(Integrated Farming System, IFS)을 통한 사역들에서 하는 양계 사업과 양식사업, 텃밭, 소규모 방앗간 등을 통해서 4만불에서 5만불의 추가 농가 소득을 얻게 해주었다. 나아가 그들은 자기들의 매일 식품비 지출을 약 1불 25전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채소와 육류를 자기 뒷마당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실감하는 공동체들 안에서 하고 있는 대중 옹호사역과 공동체의 수용능력 개발 사역은 공동체가 미래의 기후 위기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⁴

알래스카에서 들려온 목소리:
프랜 린치(FRAN LYNCH), 알래스카 윌로우(WILLOW)에서
윌로우 교회 및 공동체 사역(WILLOW CHURCH AND COMMUNITY MINISTRY)
총무로 섬기고 있는 교회 및 공동체 사역자

약 삼년 전에 한 지역 여성이 나에게 식량배급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지를 물어 보았다. 그녀는 점점 줄어들어든 그전의 윌로우 재활용 프로그램(Willow recycling programs)에 남은 은행 잔고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공동체를 위한 유용한 일에 쓰고 싶어했다. 물론 식량배급소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였지만 우리는 그 대신 재활용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는 이미 식량 배급소에 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 음식을 담은 가방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 가방을 사용하라고 권장하였다. 만약 그들이 식량배급소에 다시 올 때 그 가방을 가지고 오면 추가 식량 품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약 가족들의 절반이 매번 배급소에 올 때 가방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여성과 나는 재활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재활용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고 그들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죽어간 것이다. 우리는 윌로우에서 남쪽으로 30마일도 더 넘게 가야 있는 팔머(Palmer)지역의 밸리 재활용 센터(Valley Center for Recycling Solutions)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는 다른 6명을 찾아 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윌로우 연합감리교회로 모이게 했다. 그날 그 건물은 붐벼졌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본당 안에 십자가 밑에 의자를 둥그렇게 놓은 곳이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

우리는 팔머(Palmer)지역의 밸리 재활용 센터(Valley Center for Recycling Solutions)와 마타누스카-수시트나 자치구(Matanuska-Susitna Borough)(윌로우가 있는 곳)와 협력해서 자치구 재활용 수집처로 재활용품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윌로우 저장소(Willow Transfer Site)에 시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두 번 모여서 일하는 확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약 600가구 이상이 지난 몇 년간 참여해서 평균 매일 6가구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수확이 있다: 첫째 그들은 모든 것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만 싸인다. 둘째,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없어졌다. 재활용은 무료인데 자치구 쓰레기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된다. 셋째, 윌로우 감리교회는 윌로우 재활용 사역의 부활에 일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자원 봉사자 숫자가 늘어나서 사람들은 일년에 한 두 번만 일하면 된다. 우리는 앞에 언급한 두 단체들과 자치구 안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저장소들과 협력하기 때문에 더 큰 연결된 조직의 일부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윌로우 지역 공동체 조직(Willow Area Community Organization, WACO)이라고 불리는 윌로우 지방 자치 조직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와코(WACO)의 공식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그 이사회에 사역 보고를 하고, 우리 장비를 사기 위한 자금도 지원받고, 일반인들에게 광고도 하고, 매달 윌로우 재활용 센터(Willow Recycling)가 제공하는 새로운 소식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지역 윌로우 초등학교(Willow Elementary School)와 윌로우 커뮤니티 센터(Willow Community Center)와 함께 추가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몇 사업체들도 역시 재활용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재활용 사역을 교회의 사역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교단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심장을 가지고 돕기 때문에 윌로우 재활용 센터(Willow Recycling)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⁵

**페루에서 들려온 목소리:
아니 솔리스(ANNIE SOLIS), 이전 세계선교부 선교 인턴
(FORMER GLOBAL MINISTRIES MISSION INTERN)이자 페루 감리교회
감독 주재 기후 정의에 관한 사역팀
(BISHOP'S TASK FORCE ON CLIMATE JUSTICE)의 일원**

리마(Lima)시는 많은 언덕들의 한 복판에 세워져 있다. 그곳은 페루 해변의 아주 건조한 지역에 있는 안개와 물기로 가득찬 생태계이다. 그곳은 또한 많은 동물들, 예를 들어 여우, 사슴, 부엉이, 산토끼 비슷한 동물(vizcachas) 등 절벽과 바위 틈에 사는 짐승들과 백합 비슷한 신비한 꽃들(Amancaes)의 고향이다. 나아가 이 언덕들은 리마의 북부 해변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개발과 광산 및 사유지 소유권 문제들이 이러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마의 많은 주민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언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페루의 감리교회의 기후 정의에 관한 사역 모임(Working Group on Climate Justice of the Methodist Church of Peru)의 목표 중의 하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페루 감리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16년에 우리는 감리교인들의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리마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보존에 대해 묵상하고 페루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도전들을 토론하게 된다. 기후 정의 사역 모임(Working Group on Climate Justice)은 감독이 주재하고 연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감리교인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다른 추가적인 목소리들을 읽고 싶으면 2016년 5/6월호 뉴 월드 아웃룩(New World Outlook) 참조

-
1. 샴이소 무파라(Shamiso Mupara), 환경학자, 세계 선교부, 저자와의 2016년 10월 9일 이메일 인터뷰.
 2.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Oklahoma Indian Missionary Conference), 연회 감리사. 저자에게 2016년 10월 11일 자 이메일 내용.
 3. 저자의 글에서 발췌된 내용: 도티 용어(Dottie Yunger), “동부 수도권 도시 농장-디씨의 한복판에서(The East Capitol Urban Farm—in the Heart of DC),” 뉴월드 아웃룩(New World Outlook), 2016년 5/6월호, www.umcmission.org/find-resources/new-world-outlook-magazine/2016/may/june/0707heartofdc. 허락을 받아 사용함. 용어(Yunger)는 현재 솔로몬 연합감리교회(Solomons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 목사이다.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녀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메모리얼 연합감리교회의 부목사였다.

4. 소티코 파구라얀(Sotico Pagulayan), “기후 변화와 여성의 능력개발,” 하나님 창조세계를 돌보는 이들-아시아의 사역 (Care Takers of God’s Creation—Asia Initiative) 2016년 10월호. 허락을 받아 사용함. 파구라얀(Pagulayan)은 세계 선교국의 창조세계 돌봄 사역 팀의 일원이다. 그는 캄보디아의 공동체 건강 및 농업 개발 선교 사역(Community Health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mission in Cambodia, CHAD)의 유급 사역자다.
5. 프랜 린치(Fran Lynch), 세계 선교부 교회와 공동체 사역자(Global Ministries Church and Community Worker) 월로우 교회와 공동체 사역 총무로 섬기고 있다. 저자와 2016년 9월 28일자 이메일 인터뷰.

제 3 장

기후 정의를 위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전략과 해결책들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합감리교회의 프로그램들과 개인이나 공동체나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후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 일들”과 같은 목록에 익숙해 있다. 그것에는 재활용, 장바구니 사용, 전구 직접 갈기 등등이 포함된다. 아래는 지구를 돌보는 일의 복잡성을 인식한 2016년 웨스트 오하이오 선교 학교(West Ohio Mission u)에서 제시한 또 다른 목록이 있다. 여기에는 창조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도 없기 때문이다.

칼라바쉬 카에(CALABASH CAYE)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

1.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고양하고 교육한다.
2.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신화를 몰아낸다.
3. 옹호 사역에 참여한다.
4.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
5. 덜 사고 산 것은 낭비하지 않는다.
6. 중고품을 산다.
7. 가난한 이들이 양질의 먹거리를 얻는 기회를 늘리도록 일한다.
8. 창조세계의 돌봄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친다.
9.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
10.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성서 및 감리교회 신학을 배워 전문가가 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공정하자, 친환경적이 되자 (BE JUST. BE GREEN) 운동의 환경 보호를 위한 13개 원칙들

환경파괴, 재앙 수준의 가난과 질병, 무기와 폭력의 급증, 경제적인 부정의, 인종차별적 부정의, 성차별적 부정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한 정의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정한 제도를 변혁할 수 있는 꿈을 꿀만큼 효율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13개 원칙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모임과 만남을 조직할 때 어떻게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부정의를 지적하고 직접 이런 연결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독자들은 개별 교회 여성교회 모임이나 지방 모임이나 연회 모임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 바란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과 자료들

여성교회 공정하자, 친환경적이 되자(BE JUST. BE GREEN.) 지역총회 지침

〈공정하자, 친환경적이 되자〉 운동의 지역 총회 지침은 기후 정의를 위해 교육하고 연결하고 옹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더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와 같이 동역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guides.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차세대 기후 정의 시범 사역

2016년도 차세대 기후 정의 시범 사역(The New Generations Climate Justice Pilot Program 2016)은 여성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환경 부정의와 사회적 피해를 끝내고자 행동하고 옹호하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연합하였다. 10주간에 걸친 온라인 과정과 이어진 선교학교 직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내부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계발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도록 고안된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잘 안내를 받았다.

함께 하는 시간 동안 12명의 참가자들은 4가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 정의 개론: 운동, 공동체, 자신의 역할; 효과적인 연대 사역과 조직화; 선교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른 이들을 교육하는 일. 전반적으로 그 목표는 선교학교에서 2017년에 기후 정의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방법을 쌓아가고, 계속해서 배우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환경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데 있다.

배우기

이 모임은 젊은 여성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배움은 기후 정의 사역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여러 번의 모임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하기

우리는 우리들의 도시들에서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지역 단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후 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믿음의 눈을 통해 기후 정의를 보고 있는 젊은 여성들과 교제하였다. 후속 사역은 우리들이 다른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을 교육하고 계속해서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는 일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실천하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력은 쉽지 않다. 우리의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화해를 이루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너무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전세계를 아우르는 우리 교단안에서조차도 이 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어려운 일로 부르셨고 힘을 주신다. 차세대 기후 정의 시범 사역(The New Generations Climate Justice Pilot Program)은 젊은 여성들을 한데 모아서 10주 동안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하는 경험을 주었다. 우리는 다른 여성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중요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겼다.

이것은 “밖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만을 위한 사역도 틈새 사역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서 우리들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와 어떻게 서로 교감하는 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개인으로서 혹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성경 공부도 있고 기후 정의에 관한 대화 대본도 있고 “환경 보존을 위한 13개 원칙”(13 Steps to Sustainability)도 있고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회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안내(Practical Planning Guide for Sustainable Meetings)”도 있고 후속 독서 추천 목록도 있다.¹

젊은 여성들 가운데 기후 정의에 관심이 있는 이가 있는가? 기후 정의에 관해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엘리자베스 춘혜 리(Elizabeth Chun Hye Lee)에게 연락해 보라: elee@unitedmethodistwomen.org.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기후 정의 가상 체험

이 기후 정의 가상체험은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것은 미국 내 세 지역 공동체가 실제로 직면한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들은 환경 부정의에 대항하여 조직을 하고 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극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1. 기후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지역 상황에 대해 지식을 얻는다.
2. 지역 공동체들과 연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대변활동을 하게 된다.
3. 이런 특정 기후 정의 문제를 다루는 3군데 지역 조직들의 사역을 소개받는다.

독자들의 지역 교회 여성교회가 어떻게 이 기후 정의 가상 체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정 보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얻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simulation-experience.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그 회원들이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기후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 기후 정의 가상체험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것은 미국 내 세 지역 공동체가 실제로 직면한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 다섯 명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이 자기 연회와 위원회를 할 때 환경 보전을 위한 13원칙들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역 총회의 지침을 실천하는 훈련을 받았다.
- 락키 마운틴 연회(Rocky Mountain Annual Conference)에서는 남부 우테(Southern Ute) 부족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독극물 방출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총회 지침을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 일했다.
- 공정하자. 친환경적인 되자(Be Just. Be Green.) 사역팀은 홀스톤 연회(Holston Annual Conference)에서 연회 전반에 걸쳐서 환경 보전을 위한 13 원칙들을 따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께 일하고 나누기 시작했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젊은 여성들(21-38 살)과 협력해서 차세대 기후 정의 시범 사역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5개월에 걸쳐서 가정에서 기후 정의 문제를 놓고 공부하면서 자기들의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공정하자. 친환경적인 되자(Be Just. Be Green.) 사역팀은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중적인 여론에 저항하고, 기업의 정당화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들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힘에 도전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드는 쪽의 운동을 시작하는 변화를 이루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적극적으로 미시간 주 플린트(Flint, Michigan.)의 위기에 관하여 옹호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교회와 그 회원들은 세금 공제를 위한 인기몰이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부유층의 감세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점과, 주정부는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잠잠하게 하는 긴급 행정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점, 오염 기업들이 자행하는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더 높은 전기세를 부과한 점,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들에서 보듯이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지속적인 부정의, 대중 교통 수단의 부족, 산모와 유아 사망율의 고공 행진, 그리고 납 중독 등을 지적하였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원들은 2017년 동안 질병 통제국의 건강한 가족/납중독 예방 프로그램(Healthy Homes/Lead Poisoning Prevention Program)의 지원금을 다시 책정하도록 하는 변화의 띠(Color of Change)두르기 운동을 촉구하였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원들은 자기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식수 문제를 검토해 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유색인종 마을에 부당하게 더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후에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독극물이 함유된 식수를 마셔야 되는 지역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전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기도와 절제의 날 기금(Call to Prayer and Self-Denial Grant)은 우간다의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 모임들로 하여금 종자씨와 농기구를 사고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새로운 방법을 배우도록 하였다.²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과 자원들

웨스패스(WESPATH) 복지 및 투자 회사

다음의 내용은 <웨스패스>(Wespath) (이전 연합 감리교회 연금 및 의료보험국의 새 이름으로 웨슬리안의 길이라는 뜻)가 관리하는 투자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웨스패스 복지 및 투자 회사(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는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의 평신도 고용인들과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수백년간 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웨스패스(Wespath)는 투자할 때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ESG)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세계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참여하는 이들의 장기적인 가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웨스패스(Wespath)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믿고 저탄소 경제를 지지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공공 정책(예를 들면 2016년 11월 4일 효력을 발휘하게 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진행중이며 기업활동과 개인의 행동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웨스패스(Wespath)는 “회피-참여-투자”(“Avoid - Engage - Invest”)라는 틀을 사용해서 기후 변화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들을 밝혀 내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회피(“Avoid”)는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에 대한 투자 회피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공공 정책 부분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참여(“Engage”)는 웨스패스(Wespath)의 기후 변화 관련 행동의 핵심인데 세계 정책 담당자들과 상장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년 이상을 웨스패스(Wespath)는 기업들에게 기업 운영의 열효율을 증가시키도록 권해왔고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정할 것을 권면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웨스패스(Wespath)는 세계 최대의 기름 및 가스 교역 회사들과 더불어 그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권면하는 의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화석 연료는 전세계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 집을 밝히고 열을 공급하고 교통 수단의 연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패스(Wespath)는 기름과 가스 회사들이 자기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하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웨스패스(Wespath)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전세계 최대 투자자들이 이 대화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웨스패스(Wespath)는 변화를 촉구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런 회사의 주식을 팔아치우라는 주문을 받아 왔다. 웨스패스(Wespath)는 그렇게되면 연합감리교회는 그 선교와 이해를 옹호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 우리가 “회의장에서의 의석”을 잃게 되면 그 결과는 침묵 아니면 부재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데 이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다.

그러는 대신 웨스패스(Wespath)는 참여하는 쪽을 택하였다.

투자(“Invest”)는 웨스패스(Wespath)가 관리하는 자원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인 미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016년에, 웨스패스(Wespath)는 3억불을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오염을 통제하는 기업들에 투자했다. 웨스패스(Wespath)는 또한 계속해서 숲을 보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우량 기업들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회피-참여-투자(“Avoid-Engage-Invest”)의 틀은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웨스패스(Wespath)는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동시에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과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기금의 장기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인다고 믿고 있다.³

연합감리교회 총회 세계선교부의 지구 지킴이 (EARTHKEEPERS) 프로그램

지구지킴이(Earthkeepers)는 세계 선교부의 프로그램인데 자기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지구를 지키는 일에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500명의 연합 감리교인들을 지구지킴이로 위임하려는 시도이다. 지구지킴이는 오늘날 우리 세계가 당면한 생태계의 도전을 심각하게 느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부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느낀다. 지구지킴이는 자기 교인들과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도시의 “식량 사막”(“food deserts”) 안에 지역사회 텃밭을 만들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고 환경 정의를 위해 일하면서 독극성 쓰레기를 자기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근처에서 제거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들은 지구를 돌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뜻의 핵심에 있다고 이해한다. 더 자세한 지구지킴이에 대한 정보와 지킴이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원하면 팻 와트킨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jpatdenise@mac.com.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연합감리교회

명백한 과학적인 위험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쓰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회기반시설과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방해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산업이 지대한 위해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위한 도전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신앙 공동체들은 교육이나 대화나 옹호같은 행동을 넘어서 투자회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연합감리교회 운동(The Fossil Free UMC campaign)은 2016년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 감시 목록에 화석 연료를 포함시켰다. 총회 세계선교부와 열한 개의 연회가 이 입법안을 지지했고 72명의 연합감리교회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조했다. 그들은 기후 변화의 지대한 위협과 화석 연료 분야의 고집스러운 변화 거부 때문에 교회는 이제 더이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고통을 대규모로 초래하는 그런 기업들에게서 이윤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공감했다.

비록 이 입법안이 통과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교회 안팎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성애와 교단 분열이 대부분의 교회의 관심사였던 바로 그 해에 기후 변화는 총회장 안에서의 토론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였다. 총회가 끝난 직후 몇 주 안에 뉴욕 연회와 퍼시픽 노스웨스트 연회는 투자 철회를 결정하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의 세대가 자기들이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교회의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찾았다고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중의 하나인 연합감리교회는 기후 변화가 모든 곳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여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것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그런 비전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연합감리교회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왜 미국 석유기구(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교회가 화석 연료 산업에 재정적인 결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하는 블로그의 글을 쓴 이유일 것이다. 수많은 기관들이 (100개가 넘는 종교 단체들을 포함해서) 이미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자산에 대한 투자회수를 결정한 액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이제는 중요한 에너지 변화가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연합 감리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런 변화가 촉진되기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후 변화의 가장 최악의 영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⁴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회부

총회 사회부(GBCS)는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또 기후 정의의 대변인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환경 정의 연결망(Environmental Justice Network)에 참여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면 다음 사이트를 보라: http://action.umc-gbcs.org/signup_page/joinnetworks.

총회 사회부의 “믿음과 사실들”(“Faith and Facts”)의 카드들을 보면 우리의 성경적인 소명과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인 가르침의 눈으로 본 문제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다. 현재의 사실들에 대한 예와 개인들과 교회들과 지역사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다. 카드들은 총회 사회부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고 친환경, 깨끗한 물, 기후 정의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 당하는 고통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지역사회의 의식화와 대변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장 샬(Jean Charles) 지역사회가 직면한 부정의를 볼 때, 그들은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루이지애나 주의 장샬 섬(Isle de Jean Charles)에 있는 지역사회의 연합감리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까?

이 예를 생각해보고 지금까지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서 독자들이 가진 성경 지식과 함께 무엇이 정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해 보라.

목상을 위한 질문들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룹에서 우리가 환경 정의를 위해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가를 살펴 보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라.

1. 독자들의 교회나 연회나 지역사회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이 부록에 나오는 전 세계의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연합 감리교인들에게 전달해야 기후 변화가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연합 감리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2. 어떻게 해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공정하자, 친환경적인 되자(Be Just. Be Green.)의 원칙들을 단지 회의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과 연회 등등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알게된 전세계에 걸친 기후 정의를 위해 만든 세계적인 정책들과 전략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면 자신이 속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교회와 연회 등등이 이런 정책들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정책들을 뒤집어 엮는 사역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4. 당신의 연회에 창조세계 돌봄의 사역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이 그 사역팀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고 참여해 보라. 없다면 어떻게 기후 정의 교실을 다른 이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라.
5. 어떻게 다른 조직들이 당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지구를 돌보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라. 당신은, 혹은 당신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나 교회는 어떻게 그들과 동역을 할 수 있는가?
6. 기후 정의는 “환경운동”이나 재활용(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경제문제와 인종문제와 성차별 문제가 포함된다. 지구를 돌보는 것은 힘들고 복잡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당신의 신앙 여정은 어떻게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동

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직들과 연결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가?

7. 종종 우리들은 환경을 돌보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망친다는 말을 듣는다. 환경 규제는 기업들에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해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팔래치아 산지에서 석탄캐는 직업들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계가 사라지는 것과 환경파괴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당신은, 특히 아팔래치아같은 지역에서, 석탄이 끼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과 기술에 발전을 둔 건강한 경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우리 나라의 그 지역의 일부에 속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은 그런 경제적인 전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팔래치아 2050(“Appalachia 2050”)이라는 비디오가 다음에 나오는 “자료” 부분에 들어 있는데 토론을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한 번 보도록 한다.

-
1. 카르멘 프란세스코(Carmen Francesco), 키르스텐 럼지(Kirsten Rumsey), 켈리 슈바이퍼(Kelly Schaefer)가 쓴 *기후정의를 위한 차세대*(“New Generations for Climate Justice”)라는 **리스판스** 잡지에 나온 글 요약, 2016년 11월호, 39쪽.
 2. 엘미라 나좀베(Elmira Nazombe), *연약 공동체로 살기: 인도자 지침서*(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17), 39, 43, 44쪽
 3. 바바라 에이 볼게그레인(Barbara A. Boigegrain), 대표이사겸 총서기, 웨스패스 복지 및 투자국(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 저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2016년 10월 18일.
 4.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연합감리교회 운동 책임자, 저자와의 인터뷰 2016년 10월 31일.

자료들

새로운 피조물: 오늘날의 요한 웨슬리의 신학(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테오도르 런연(Theodore Runyon) 지음

창세기의 땅 이야기(The Earth Story in Genesis) 노만 하벨(Norman Habel)과 셸리 우스트(Shirley Wurst) 지음

땅은 내게 속하였다: 여섯 가지 성경적인 땅의 이데올로기들(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노만 하벨(Norman Habel) 지음

하나님과 구약의 세계: 창조의 관계적 신학(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테렌스 프레트하임(Terence Fretheim) 지음

하나님의 천국: 생태계의 시대에 새로와진 종교(The Paradise of God: Renewing Religion in an Ecological Age) 노만 위즈바(Norman Wirzba) 지음

땅의 하나님: 극단적으로 생태계적인 기독교의 발견(God of Earth: Discovering a Radically Ecological Christianity) 크리스틴 스완슨(Kristin Swenson) 지음

하나님의 몸: 생태계 신학(The Body of God: An Ecological Theology) 셸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 지음

비디오

최후의 산(The Last Mountain): 산봉우리를 제거하는 광산업은 이 탄광 근처에 있는 강과 시내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해가된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이다. 이 기록영화는 웨스터 버지니아 주의 콜 리버 밸리(Coal River Valley)에 사는 주민들이 산봉우리 제거 방식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상영시간: 95 분 <http://thelastmountainmovie.com>

붉은 금: 환경 기록영화(Red Gold: An Environmental Documentary): 알래스카의 브리스톨만 (Alaska's Bristol Bay)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 54분짜리 영화의 핵심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장 큰 금광과 구리광이 그 지역에 사는 연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준다. <https://vimeo.com/ondemand/11980>

아팔래치아 2050(Appalachia 2050): 이 56분짜리 기록영화는 반세기에 걸친 가난과의 전쟁이후 무엇을 성취했고 아직도 무엇이 더 실천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그 지역에 사는 8명의 주민들이 2015년까지 무슨 일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토론한다. www.youtube.com/watch?v=FChZNGYDY9o

가스랜드(Gasland): 수압을 이용한 파쇄기술 또는 “세일가스 추출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가스를

시추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조슈 팩스(Josh Fox) 제작자는 천연가스 회사로부터 자기 땅을 셰일가스 추출을 위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전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새로운 기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영화를 찍었다. 상영시간: 107분. <http://one.gaslandthemovie.com/home>

홍수 이전(Before the Flood): 96분 짜리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잡지에서 만든 기록영화로 배우이자 환경 운동가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현재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http://channel.nationalgeographic.com/before-the-flood>

추가적인 비디오를 원하면 빙하를 쫓아서(Chasing Ice), 잡동사니 이야기(The Story of Stuff) 그리고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보라.

웹사이트들과 기관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Methodist Women):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이분에게 연락바람: Elizabeth Chun Hye Lee

Executive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Christian Social Action

United Methodist Women

United Methodist Office for the United Nations | Church Center for the UN 777 United Nations Plaza, 11th Floor | New York, NY 10017

(T): 212-878-7814 | (F): 212-682-5354

Email: elee@unitedmethodistwomen.org

지구 돌보기(Earth Ministry): www.earthministry.org

연결된 창조세계(Web of Creation): www.webofcreation.org

미국 환경 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epa.gov

환경 보호단체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EPA Energy Star Program): www.energystar.gov

창조의 계절(Season of Creation): www.seasonofcreation.com

복음주의 환경연합(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 www.creationcare.org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봄이(Caretakers of God's Creat

저자 소개

팻 와트킨스(Pat Watkins)는 연합감리교회의 버지니아 연회의 안수받은 정회원 목사이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교사”로 일한 전직 선교사이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반적인 교회의 전세계 사역 속에 통합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는 가난과 질병과 환경과 폭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다. 효과적인 선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다루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와트킨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 더 작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 그는 의식화에 열정이 있는데 특히 신앙이들 사이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치유하는 책임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의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팻은 은퇴해서 지금은 아틀란타에 살고 있다.